

주사충(周思聰)의 작품세계

오 세 권*

- I. 서론
- II. 시대적 배경
- III. 주사충의 생애
- IV. 작품세계의 변화
 - 1. '리얼리즘'의 표현 시기
 - 2. '광공도' (礦工圖)의 표현 시기
 - 3. '이족' (彝族)의 표현 시기
 - 4. 연화(蓮花)의 표현 시기
- V. 작품세계의 특성
- VI. 결론

Zou Si Cong's Work

Zou Si Cong is a very significant female artist from the period when China was forming its modern arts and culture. Zou Si Cong, who was influenced by China's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was born in 1939 and died in 1996. Her actual work period was after China's 'Cultural Revolution' and lasted only 13 years, from 1978 to 1990. Her passion for art never stopped, even when she was suffering from severe arthritis with its torturing pain.

There were big changes that occurred in her work; 'Early Work', 'Realistic Work', 'Mine Worker Painting', 'Yi Tribe' Painting', 'Lotus

* 홍익대학교 강사, 미술학 박사

Paintings'. 'Mine Worker Painting', which represented a new figure by abandoning traditional techniques, dividing picture space, and changing and distorting forms, was the one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f all on a lot of people and strongly influenced modern Chinese figurative painting.

The characteristics of Zou Si Cong's work are in its 'Traditionalism', 'Realism', and 'Historical' aspects. Zou Si Cong developed her uniqueness, along with Western expressions,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painting techniques. Realism, through realistic rendering, appeared in her figurative painting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Yi Tribe' paintings lively illustrated their lives. She creatively reinterpreted history in the composition of Mine Workers, which is based on the historical record of Chinese barbarity.

요 약

주사충은 중국의 현대 미술문화를 형성하는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여성 화가이다. 그는 1939년에 태어나 1996년에 사망하였는데 중국 정치·사회의 격변기를 지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 그의 실제적인 작품 활동 기간은 중국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8년부터 약 1990년까지 약 1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다. 특히 1985년 이후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창작력을 보였다.

주사충의 작품의 변환을 보면 크게 '리얼리즘의 표현시기', '〈광공도〉(礦工圖)의 표현시기', '이족(彝族)의 표현시기', '연화(蓮花)의 표현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광공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중국의 현대 인물화에 있어서 전환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인물화 표현에서 벗어나 화면을 분할하고, 인물을 변형하거나 왜곡시켜 새로운 인물화를 보여 주었다.

주사충 작품세계의 특성은 '전통성', '리얼리즘', '역사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주사충은 중국 전통 회화표현을 바탕으로 서양의 표현과 자신의 개성적 표현을

더했으며, ‘문화대혁명기’ 때는 인물의 실사표현을 통한 리얼리즘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쪽’을 나타낸 작품들에서는 그들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일제 만행의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광공도>가 이루어진 것에서는 ‘역사’를 재 해석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창의성을 볼 수 있다.

I. 서론

주사총은 중국의 현대 미술문화 형성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가로 평가받는 유일한 여성 작가이다. 한국의 여성 동양화가 가운데 현대 동양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박내현과 비슷한 위치의 중국 여성작가라고 보면 되겠다. 주사총은 1939년 1월에 태어나 1996년 1월에 사망하여 중국 사회의 대변혁 시대를 겪으면서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그동안 해방전쟁, 중국의 건국, 문화대혁명, 중국의 개방화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치운동의 시련과 함께 작품세계가 변화하였다. 특히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는 개방된 사회를 맞이하였고,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충돌을 보았다. 즉 근·현대 중국이 가진 사회와 미술문화의 변혁 시기를 작가로서 맞이한 것이다. 그러한 충격 속에 그의 작품도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인물화 표현의 새 지평을 열었다.

주사총의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일정은 짧다. 대부분 작품들이 198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 중국 정치·사회와 미술문화의 형성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많은 작가들이 붓을 들지 못했고, 1977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개방화의 정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작가들이 작품제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80년 이후가 되어서 비로소 주사총의 작품세계가 활발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정치 사회의 변혁 속에서 개인적 자유를 앗아간 환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작가의 처지 때문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류마티스라는 병을 앓게 되고 얼마 후에는 뼈마디가 비틀러 붓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만다. 그는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에 열중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그의 작품활동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창작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대 미술사의 인물화 표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투철한 예술 정신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현대미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여성화가로서 특히, 현대 중국화 형성에 있어서 인물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주사충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시대적 배경

주사충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의 미술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한다. 여기서 정치, 사회적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당시 미술문화를 형성했던 미술문화의 상황을 좁혀 살펴보는 것이 주사충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므로 주사충이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약간 소급하여 시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12년 '청' 나라의 왕조에서 '중화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며, 중국 최초의 미술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사립으로 '상해미술전문학교'(上海美術專科學校)였다. 그 후 북경과 각 지방에 많은 미술과들이 설립되고 중국 전역에 미술과 또는 예술과, 공예과들이 설치되었다.¹⁾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세워지면서 서양이나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온 화가들은 각 지방의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종사하게 되며 후에 많은 현대 작가들을 배출하게 된다.

1919년 '5.4운동'은 손문의 국민당 창당 등과 함께 전국적인 신문화운동에 진입하게 되는데 미술에 있어서는 '서양화 참조', '현실중시', '혁명실행'을 고취시켰으며, 노신(魯迅)은 목판화 운동을 확산시킨다. 한편 전통화파인 오창석(吳昌碩), 제백석(齊白石), 황빈홍(黃賓虹) 등은 중국화는 전통에 근거해야 하며, 맹목적인 서구지향은 자기의 특색을 잃어버리기에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5.4운동은 서양 근대사조에 대한 개방성, 중국 고대사상과 도덕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큰 반향을 가져왔으며, 근대 중국을 신·구문화로 갈라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5.4운

1) 위의책, p. 310. 참조. 상해미술전과학교의 원래 이름은 '상해도화미술원(上海圖畫美術院)'이다. 또 다른 최초의 사립학교설립에 대한 논의는 1911년 여름철에 세워진 '증서미술학교'가 최초의 사립학교라고도 한다.

동 이후 20~30년대 중국 화단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방황 속에서 중·일 전쟁을 맞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은 1945년 2차대전을 끝으로 모택동(毛澤東)의 공산당과 장 개석(蔣介石)의 국민당이 이념적 갈등으로 나서게 되며 내전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1949년 국민당 정부가 패전하여 대만으로 철수하고, 미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면서 '인민을 위한 예술'이란 이념아래 미술은 사회주의 혁명이념에 맞는 '리얼리즘' 형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 그동안 신미술운동을 주도해 왔던 작가들은 1948년과 1949년을 계기로 새로운 무대로 출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66년에서 1976년은 '문화대혁명'의 시기로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극좌 사조 아래 비판은 문화의 외부연계를 중단시켰으며, 역사 전통을 분리시켰다. 미술에서는 인민공화국 수립 후 17년 성과를 비판하였다. 그동안의 중국전통화를 '흑화'(黑畫)라고 비판하고 많은 작가들의 작품 내용에 죄명을 씌웠다. 그리하여 작가들의 정상적인 창작은 멈추게 되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형식은 표현의 개성이 말살되고 정치구호로서 나아가게 하였다. 나아가 리얼리즘 형식에 맞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천편일률적인 작품들이 나타나 예술의 개성과 다양성이 억제되었다.

1976년 중국 정치의 중심을 이루어 왔던 4인방체제가 무너지고 1977년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의 시기는 끝이 난다. 그리고 1978년 덩소평이 복귀하고,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기운이 고조되고 전통적 표현이 부활되었으며,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었는데 이전의 속박에서 다소 정신적인 해방을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중국 미술계에도 서양 현대미술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미술저작도 대량으로 번역되었다. 창작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단일한 방법에서 벗어나 개방적 현실주의와 다원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상의 해방은 자아의식을 깨닫게 하였으며, 개성이 존중받게 되고 점차 창작이 자유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서양 현대미술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충격파를 형성하였다. 많은 젊은 미술가들이 영향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점차 그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중국미술은 단일한 현실주의적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다원화로 발전되었다. 이전의 방식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각자의 특색을 갖고 있는 창작 방법을 확립하였고, 실험적인 예술세계를 구현하며 나아갔다.

이상과 같은 주사총의 작품세계는 중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형성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의한 서양 현대미술의 유입과 충격이 배경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전통 중국화의 발전 등 당시 중국의 사회·정치·문화의 급박한 변혁 속에서 형성된 예술세계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예술가가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 예술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시의 현실과 여건 속에서 부단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주사총의 생애

주사총은 1939년 1월 11일 중국의 허북성(河北省) 영하현(寧河縣) 노대진(盧臺鎮)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조부 이소여(李紹餘)는 당시 이름 있는 한의사였는데 여가의 시간에는 시를 쓰고, 글과 그림을 잘하여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주사총의 그림 그리는 배경은 집안의 외조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사총이 태어나던 해인 1939년 중국은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안정되지 못하여 공황이 계속되었으며, 약탈이 빈번할 때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바랐는데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여서 그에게 '닝닝'(寧寧)이라는 아명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조부는 '논어' 가운데 '군자에게는 아홉 가지의 생각하는 것이 있다(君子有九思)'라는 구절에서 글자를 따와 '사총'(思聰)이라는 학명을 지어 주었다.

1943년 주사총의 가족들은 북경으로 이사를 하였고 북경내에서도 또 이사를 하고, 전학도 여러 번 하면서 주사총은 당시 북경의 제일 좋은 국립소학교를 마쳤다. 이와 같은 이사와 전학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주사총은 사범대학 여자부속중학교를 진학한다. 그리고 초급중학교 시절 어느 날 한 간행물에서 독일의 여성작가인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의 그림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그림에 대한 충동을 느꼈으며, 콜비츠는 일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숭배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잡았다.²⁾

중학교 졸업 때 중앙미술학원 부속중학교에 원서를 내었으나 의사가 되기를 바랬

던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기회를 잃었다. 그 후 아버지를 설득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앙미술학원 부속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으며, 3년 동안 소묘와 색채의 기초를 다졌다.

1958년 중앙미술학원 국학학부에 진학한다. 이때 이가염(李可染), 장조화(蔣兆和), 엽천여(葉淺予), 이고선(李苦禪) 등 당대 중국을 이끌어 가던 여러 선생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이가염에게는 산수화를 배우고, 장조화에게는 인물화를 지도 받아 기초를 탄탄하게 하였다. 이때 중국화와 서양화를 동시에 교육받았는데 1959년에는 <의호원일각>으로 '세계청년축제 국제청년미술전람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1963년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하고, 북경화원에 배치되어 전문 창작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때 중국은 사회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양식과 일상용품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생활이 어려웠다. 1964년 나중에 결혼하게 될 노침(盧沉)을 알게 되었다. 화원에서의 '문화대혁명' 전까지 주사충의 작품세계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이때는 노동자와 주변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 소재를 수집하였고 자신의 기교를 연마하는 시기였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고, 작품생활도 중단되었다. 이때에는 소량의 작품이 있지만 대부분 혁명에 종사하는 작품으로 <혁명의 붉은 등이 무대를 비춘다> 등이 있다. 1969년 노침과 결혼을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남구농장'(南口農場)에 내려가 농동을 하였다. 1973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 <장백청송>(長白青松), <산간의 새길> 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1974년부터 1977년까지 <노신과 진경대장>(魯迅과 陳庚大將), <전선에 돌아오다> <지진복구 초등학교 첫수업> <주총리와 여방직공> 등을 그렸다.

1978년 지진 지역에 가서 <인민과 총리>(人民和 總理)의 작품 소재를 수집하고, 많은 인물을 스케치 하였다. 그리고 길림성 박물관에 가서 일제 시기의 역사 자료를 열람하였다. 1979년 <인민과 총리>를 완성하여 '건국 30주년 전국미술전'에서 1등상을 받았다. 이때부터 주사충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 노침과 길림성 탄광에 가서 <광공도>(礦工圖)의 소재를 수집하고, 광부들을 소재로 하여 대량의 스케치를 하였다. 그리고 길림성 박물관에 가서 일제시기의 역사 자료를 열람하였다. 또한 북경미술촬영 전시회를 따라 일본으로 방문하고 丸

木 부부를 만났다.

1981년 '광공도'의 6번째 그림 <고아>를 그렸고, 丸木 부부와 같이 중국의 계림, 장사, 남경, ... 등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사생하였다. 1982년 <왕도락토>(王道樂土), <인간지옥>(人間地獄)을 그렸다. 그리고 '이족'(彝族)을 소재로 한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휴식>을 그렸다. 1983년 강의를 하는 도중 갑자기 코피가 멎지 않았는데 진찰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북경시 정치협상위원이 되었으며 일본의 도쿄 우에노 미술관에서 <광공도>를 중심으로 30여 작품을 포함한 개인전을 가졌다.

1985년 중앙미술학원 국화과 부교수를 겸임하였으며, 중국미술가협회 부주석으로 당선되었다. 유화 <정오>를 발표하였는데 <정오>는 북경 건국 35주년 문예작품평의활동에서 '미술영예상'을 수상하였다. 1986년 소탕산(小湯山) 온천휴양원에서 병을 치료하고 요양을 했으며, <광도풍경>을 제작하였다.

1988년에는 병으로 인하여 행동이 불편하게 되며, 요양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 기공사가 치료를 하여 한때 병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다시 병이 악화된다. 1991년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시작하고, '영보제출판사'에서 『주사총 수묵화』를 출판하였다. 1992년 '천진인민미술출판사'가 『주사총화집』을 출판하였으며, 경풍호텔의 요청으로 호텔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연꽃을 중심으로 100여점을 제작한다. 1993년 호르몬 장기복용으로 다리에 궤양이 나타났으며, 점차 악화되어져 갔다.

1994년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갔다. 1996년 1월 11일 중지로 붓을 잡고 <이가염 선생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것이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20일 '급성 괴사성이선염'이라는 병으로 57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Ⅳ. 작품세계의 변화

1979년 이후 중국문화계는 대변혁의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 당시는 이전의 문화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새로운 예술문화의 방법을 추구하는 시기였는데 미술문화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서양 미술의 유입은 중국 화단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었고 개성이 충만한 표현방식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주사총 또한 새로운 양상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오히려 세차게 밀려오는 새로운 미술문화에 대한 조류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충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전통예술을 자양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변화로 나아가려 하였다. 즉,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기초를 기반으로 하여야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믿었다. 그리하여 기초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변혁을 갱신하였다.

이와 같은 주사총의 작품세계를 분석해 보면 '리얼리즘의 표현시기' '광공도(礦工圖) 표현시기' '이족(彝族)의 표현시기' '연화(蓮花)의 표현시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산수화' 를 더해 볼 수 있으나 산수화는 꾸준히 제작하여 왔기에 따로 시기를 나누어 논의할 수 없다. 다음 기회에 산수화는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본 논의에서는 연구의 수월성을 가져오기 위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특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1. 리얼리즘의 표현 시기

주사총의 초기작품 시기는 1963년 중앙미술학교의 졸업으로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까지의 시기로 잡아볼 수 있다. 이는 주사총이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하고 북경화원에 배치되어 창작에 열중할 때부터이며 1966년부터는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기'가 시작되어 작품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의 작품세계는 자신의 기교를 연마하는 시기였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후 공화국에서 제시하는 예술 창작 방법에 맞추어 주로 인민들의 생활과 인민 영웅들을 그렸다. 이와 같은 주제의 그림은 당시 중국에서는 일반화된 소재였으며, 주사총이 그려낸 초기의 창작들은 '문화대혁명기' 이후 펼쳐지는 실사인물화의 바탕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작품세계를 주사총 자신은 후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는 스스로 "문화대혁명 이전까지의 작품은 생활의 숨결이 있지만 천박하고 사교의 맥락과 기법이 단일한 작품들이었다."³⁾고 말한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다른 사람과 같이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고, 그 정치적 흐름에 따랐다. 그리고 1969년 노침과 결혼하였으며, 집안 일을 맡게 되

3) 위의 책, p. 26. 참조

었고, 주사충과 노침은 남구(南口)농장과 하북자현(河北磁縣)농장에 내려가서 노동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75년까지 노침이 중국역사박물관에 불려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기에 부부는 오랜 이별을 하게 되었다.

초기 작품으로는 <매표원> <아동공의 피눈물> <주총리가 방직공장에 오시다> <초유록(焦裕祿)> 등이 있고, 1964년 <떨기떨기 붉은 꽃을 모범한테 드리다> <여성청결노동자> <여방직공> 등이 있다.

‘문화대혁명’ 가운데 주사충은 인민 영웅들을 위한 인물화를 그렸는데 작품들은 각종 전람회와 출판물에 실려 호평을 받았으며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작품의 주제들은 생활 속에서 찾았고, 그림을 위한 구상을 여러 번 하였다. 창작의 방법은 ‘공농병을 위하여 복무’ 하는 방침에 따라 혁명적 이상주의와 미래에 대한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창작을 하는 시기였다.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창작 태도였다. 그리고 그의 창작은 비교적 활동성이 있었으나 개성이 나타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에 봉사하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현 기법은 비교적 간단하였는데 형식으로 경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작품들은 대체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사건을 주제로



장백정승
112×96cm. 1973.



청결노동자의 그림
152×110cm. 1977.

그린 그림들인데 특히, 사회적 책임성이 강한 작품세계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는 주사충의 작품의 특성인 감정을 중요시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작품도 있었다.⁴⁾

‘문화대혁명기’의 작품으로는 〈모주석과 아동〉 〈노신과 청년〉 〈중국에서의 배순〉 〈전선에 다시돌아가다〉 … 〈항진소학교의 첫 수업〉 〈산구의 새 길〉 등이 있고 1976년 ‘문화대혁명’에 대한 불만과 각성 이후 〈주총리와 여방직공〉 〈경애하는 주총리,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그림니다〉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은 〈장백장송〉(1973)이다. 〈장백청송〉은 ‘문화대혁명’과 ‘반란’ 등에 의해 교사들은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지식청년들은 산이나 농촌으로 가서 재교육을 받았는데 농촌에 내려간 학생들이 한 그루의 장백산 소나무를 가져와 선생님에게 드리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실제적인 인물묘사를 통하여 현장감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계몽적인 목적성이 있는 작품이다.

〈청결노동자의 그리움〉(1976)은 주은래(周恩來) 총리가 새벽에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길가의 한 청결노동자(미화원)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장면의 포착과 인물의 형상화 그리고 붓과 먹의 운용법에서 과거의 작품들 보다 훨씬 성숙된 것을 볼 수 있다.⁵⁾

1977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은 등소평 등에 의해 개방화 정책으로 나아간다. 1978년 주사충은 강렬한 창작욕구가 생겨 ‘형대룡요’(邢臺隆堯)대지진 구역에 가서 소재를 수집하고 1년 여의 기간을 들여 〈인민과 총리〉를 그려낸다. 이 작품은 형대지진 때 주총리가 재해지구 인민들을 찾은 역사적 사실을 그린 것인데 ‘건국 30주년 경축 미술작품전람’에서 1등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주사충은 큰 명예를 안게 되었다.



인민과 총리
151×318cm, 1979.

4) 위와 같음, p. 32. 참조

5) 위와 같음, p. 30~34. 참조

〈인민과 총리〉(1978)는 중국 '사실인물화' 창작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주은래 총리가 재해 현장에 달려가서 상황을 시찰하고 재해민들을 위문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주사총의 작품에서는 영웅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 나타난다.

2. '광공도'(礦工圖)의 표현 시기

1979년 '문화대혁명' 후 중국문화계는 반성과 비판을 통한 대변혁기였으며 미술 문화에서는 서구현대미술이 유입되어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이에 따라 많은 작가들이 새로운 변화와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주사총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류에 영합하지는 않았다. 주사총과 노침은 서로 격려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적응해 나갔는데 노침의 경우 여러 가지 형식의 수묵화 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⁶⁾ 주사총과 노침은 전통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면서 현대적 표현을 탐색하는 변화를 모색하였는데 전통에 의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갔을 때 발전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1979년 수묵으로 인체 그리는 것을 실험 하였는데 이는 '중국 수묵인체'의 시작이었다. 이때 삽화와 수묵소품에도 있어서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⁷⁾ 그리고 '문화대혁명기'에서 그리던 사실적 인체 표현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즉 실제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던 것에서 벗어나 필묵 언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물을 새롭게 파악하는 시기였는데 이전 리얼리즘을 표현하던 시기와는 달리 느슨하고 함축적인 필선으로 물기가 없는 붓질의 효과를 이용하였다.

이 시기는 그의 작품세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며,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이 시기에 나왔는데 〈광공도〉(礦工圖)가 그것이다. 〈광공도〉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리얼리즘적 표현에서 변형과 개성적인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광공'의 주제는 1966년 노침이 초기구상을 하였는데 주사총과 노침의 공동된 주제였으

6) 郎紹君, 「주사총의 회화노정」, 『주사총』 화집 서문, 북경:영보제출판사, 1996. 참조

7) 1980년 〈단풍잎 책갈피〉〈주총리와 아이〉, 1981년 〈남쪽에서 온 기러기〉〈여인에 관하여〉〈故園篇〉, 1982년 〈작은 굴뚝〉 등의 책에 삽화를 그렸는데 이와 같은 삽화들은 생계 수단으로 그린 것이다.

며 ‘문화대혁명’ 이전에 대략 4폭의 초고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은 이 작업들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10년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고, 중국역사의 아픔에 대한 기억으로 하여금 <광공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1980년 주사총과 노침은 <광공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직접 광부들의 참혹한 생활을 체험하면서 소재를 수집하였는데 길림성(吉林省) 요원(遼源) 광구⁸⁾에서 광부들과 생활을 같이한다. 그리고 소재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을 목격하게 되고 광부들의 아픔을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주사총은 ‘북경미술촬영전’을 따라 일본으로 가 丸木位里 부부를 만나고 <원폭도>와 <남경대학살>을 비롯한 몇 개의 작품들을 보게 되었는데 작품 구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주사총은 노침과 함께 ‘광공조화’(礦工組畫)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광공’의 내용은 중국의 망국의 역사를 표현한 것이다. 노침은 <동포, 매국노와 개>의 일부를 그리고 <왕도락토>(王道樂土), <인간지옥>(人間地獄), <고아>(遺孤)는 주사총이 그렸다. 여기서 주사총은 이전의 수법과는 달리 나라를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 광부들의 억압과 아픔을 나타내는 감정의 욕구를 과장과 왜곡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구도는 분할적이고 몽타주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한 공간



광공도, 동포, 매국노와 개(초고)

8) 이 광산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중국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중국 인부를 가장 많이 모아서 일을 시킨 광산 가운데 하나이다. 주사총과 노침은 여기서 늙은 광부들을 많이 접하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며 망국의 아픔을 깊이 느끼게 된다.



광공도, 왕도락도(부분)



광공도, 고아
174×180cm, 1981.

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내용들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작품들에서 인물들은 교차되고 중첩되어 화면이 복잡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작품에서 약 90여명의 인물을 표현해 내고 있다. 놀려진 시체들이 있고, 어린이와 노인, 몸이 불구가 된 소년,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소녀, 갭도에 기어 다니는 채광 노동자, ... 등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다.⁹⁾

이와 같은 <광공도> 연작은 화면분할과 몽타주 수법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중국내 미술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현대 중국인물화의 표현에 있어서 이정표로 인정되고 있다.¹⁰⁾ 소대잠(沼大箴)은 <광공도>가 중국 미술에 미친 혁신성에 대하여 “<광공도>는 혁신적인 형식 언어의 변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대형 테마형 수묵작품에서 변형의 수법으로 창조와 변형, 구성과 사실수법으로 교차와 융합을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예술 언어의 화음을 구성하면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¹¹⁾라고 말하고 있다.

1983년 여름 주사총은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려 작품제작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원래 계획했던 마지막 한 폭이었던 ‘역사의 견증’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9) 화천설, 앞의 책, p. 58~62. 참조

10) 周林生 主編, 近現代繪畫, 석가장 : 하북교육출판사, 2004, p. 247. 참조

11) 소대잠, 「민족의 긍지」, 『주사총』, 남우 : 광서미술출판사, 1999, p. 6.

3. '이족' (彝族)의 표현 시기

〈광공도〉 등의 소재들을 근거로 하여 그는 '이족' (彝族)¹²⁾을 소재로 한 작품을 시작한다. '이족'의 생활들을 그리게 된 것은 1982년 〈광공도〉의 세 번째 그림인 〈인간지옥〉을 완성하고 친구들과 사천성(四川省) 량산(涼山)의 '이족' 지역에 사생을 하러 갔는데 여기서 그는 '이족'들의 낙후된 생활들을 보게 되면서부터이다.

'이족'은 중국의 변방족인데 대개 중국의 운남성(雲南省),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광서(廣西), 장족(壯族) 자치구 등 4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비교적 거주지역이 넓고 역사를 가진 소수 민족이다. 예전부터 이족의 조상은 중국 남서지구에 거주하였는데 이들의 조상은 협서(陝西), 감숙(甘肅), 청해(青海)에서 거주하다가 강족(羌族)의 분파가 남하하자 남서 지구의 원주민 부락민들과 융합해 이족을 형성하였다. 귀주성에서는 공산당이 1959년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대개 농사를 지었다. 주요 작물은 옥수수, 감자, 메밀, 귀리 등인데 소, 양, 염소, 말, 돼지 닭 등 가축도 기른다.

대부분 이족들은 마을과 촌락에 살고 있는데 나무로 만든 삼각지붕집에서 산다. 내부에는 중앙에 화덕이 있어 가족들은 화덕 옆에서 잠을 자며 집의 한 쪽 구석에는 축사를 만들어 가축을 들여 놓는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계급화되어 노예도 있으며 노예들은 사고 팔린다. 공산당 점령 1959년 이후 생활모습은 크게 바뀌어 농경, 가축사육, 교육 등은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이족들의 생활 모습들을 보고 주사총은 이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는다. 그림에서는 무거운 짐을 진 여인과 노정, 전 근대화된 중국 변방족들의 생활상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필묵은 점차 느슨해지고, 서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화면의 공간이 넓어지고 심미적인 표현이 더해진다.

중국에 있어 변방민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서양 현대미술이 들어오는 혼란 속에서 중국의 주체적 미술 표현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한 때 작가들의 주된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 작품에서 나타난 변방민족들의 모습들은 복장이나 춤추는 모습 등을 그려 소수민족의 생활풍경들을 그리는 것에 비하여 주사총의 작품에서는 소수민족의 비

12) 거주지역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 낙소(諾蘇), 납소(納蘇), 라무(羅武), 라라(羅羅), 미첼발(米撒撥), 철니(撒尼), 아세, 아서(阿細, 阿西) 등이 있다.



목귀, 33.5×38cm, 1983.

애가 묻어나온다. 즉 ‘이족’들의 삶에 대한 리얼리티가 잘 나타나 있다.

이때의 작품들은 대형작품보다는 스케치와 같은 작은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며, 마치 현장에서 스케치하듯이 그린 작품들이 많다. 1982년 ‘이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보면 <해가뜨면 일하고 지면 휴식한다>(日出而作 日落而息)가 있는데 나이 많은 여인과 젊은 여인이 짙어진 나무를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광공도>를 제작하는 중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수묵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어둡고 침울함을 느낄 수 있다. 1983년에는 <가을의 소묘>(秋天的素描) <목귀>(牧歸) <고원모귀>(高原暮歸), ... 등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때의 작품들도 수묵이 중

심되어 ‘이족’의 무거운 생활고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소 서정적인 면도 보인다.



우중, 51.5×50cm,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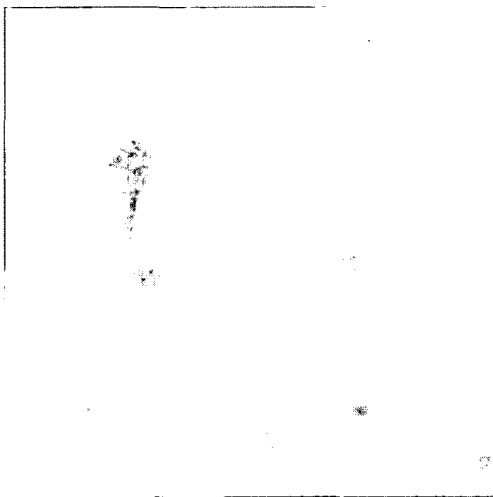
1985년부터 투병 생활에 들어가면서 ‘이족’을 주제로 하는 작은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이전과 같은 무겁고 침울한 표현은 아니었다. 1987년 <낙목소소>(落木蕭蕭)에서는 이족의 여인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작품인데 색채가 이전과는 달리 밝아져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의 ‘이족’들 표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때 주사총은 병이 깊어져

주로 앉아서 작은 크기로 '이족' 들의 춤이나 유람 등의 생활상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이족' 을 처음 그릴 때의 침울함이 아니라 전원성에서 나타나는 서정성을 느낄 수 있다.

4. 연화(蓮花)의 표현 시기

주사총의 말기 작품에는 연꽃(蓮花)을 그린 것이 많다. 그는 1983년에 진단된 류마티스 관절염이 1985년부터는 심해져 다리와 발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손가락까지 변형되어 화필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병이 약간 호전되었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하였는데 서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그러한 투병생활 가운데 제작된 말기 작품은 주로 앞에서 논의된 '이족' 과 연꽃을 그린 '연못' 그리고 '산수화' 였는데 대부분 작은 그림이었다.

주사총은 관절염 진단을 받을 무렵부터 연꽃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사지관절이 심하게 변형되어 붓을 잡을 수 없게 되면서 주제를 인물화로부터 연꽃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연꽃은 조형성이 자유로워 앉은 자세에서도 그릴 수 있을 뿐더러 연꽃은 동양에서 높은 이상을 지닌 정신적인 품격의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꽃 그리기에는 스승의 전수가 없었다. 스스로의 작법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초기 연꽃은 색채가 있고, 사실적이며, 구체적이었으나 점차 형상은 단



달빛 속의 안개, 66×67.5cm, 1991



일화일세계(부분), 55×49cm, 1992.

순해져 갔고 먹을 중심으로 그렸다.

1992년 경풍호텔의 프로젝트 요청을 받고 호텔에 투숙하면서 경직된 중지와 식지 사이에 붓을 끼워 100여쪽의 연꽃과 연못그림을 그렸다. 말기에 주사총은 연꽃을 그리면서 자신의 병고를 달랬던 것이다. 즉 연꽃을 정신적인 교류의 대상으로 삼고 연꽃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이 때 제작한 연꽃작품들을 보면 연꽃의 세밀한 표현이 아니라 연꽃이 지니고 있는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나타내었다. 연꽃들은 힘 있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시들어 가는 연잎을 가진 것 그리고 숨은 듯 뒤로 나있는 것, 앞으로 고개를 내밀고 나타나 있는 것 등 다양하면서도 종횡으로 그려진 많은 연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만한 듯 하면서 부드러우며 화려하면서도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연꽃으로 마치 주사총 자신을 은유적 형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꽃의 표현은 대체로 갈필담묵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주사총의 특이한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기법에 대하여 노침은 “주사총은 장기적인 실천에서 쌓아온 고유의 기교를 사용하였다. 반수로 종이에 칠하고 먹과 흑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특이한 침투력으로 건필 또는 갈필담묵과 같은 몽롱하면서 미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¹³⁾ 그중에는 종이를 구겨다가 그 위에 다시 먹으로 처리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기법의 표현 방법은 화면을 어렵스럽게 만드는데 물기가 많은 수묵과는 달리 많은 여운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주사총의 연화 작품을 두고 “외면은 말랐으나 내면에는 기름기가 가득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⁴⁾

V. 작품세계의 특성

주사총 작품세계의 특성은 크게 ‘전통성’과 ‘리얼리즘’ 그리고 ‘역사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주사총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특성을 살펴보자. 주사총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던 시기는 중국이 서양의 미술표현 방법을 유입하였고, 당시

13) 노침, 「사실, 표현으로부터 서정에 이르기까지」, 『주사총』, 남우 : 광서미술출판사, 1999, p. 15 참조

14) 周林生 主編, 近現代繪畫, 석가장 : 하북교육출판사, 2004, p. 254. 참조

많은 작가들이 서양의 표현 방법들을 이용하여 중국과 서양표현을 융합하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서양 현대미술이 들어와 중국미술가들은 새로운 서양표현을 유입하는 풍조가 있었다. 주사충도 학교에서 서양의 미술교육방법으로 교육받았는데 서양의 사실적 표현과 소묘의 표현은 기초로써 교육받았다. 이와 같은 서양 미술교육의 바탕은 그의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사충은 중국의 전통적 방법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작품세계 바탕은 전통적인 필묵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왜곡과 재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필묵을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기교와 영역을 탐색하고 보충하여 현대수묵화의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그는 서양 근, 현대의 표현 방법을 참고로 할 뿐이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사충은 "나는 수묵화를 사랑한다. 변화무상한 흑백은 항상 나를 심취하게 한다."¹⁵⁾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주사충이 자신 작품의 근본을 동양적인 전통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리얼리즘' 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사충의 초기 작품이나 '문화대혁명' 이후 잠시 나타나는 작품들에서는 리얼리즘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많다. 특히, 초기작품들에서는 당시 중국의 양식화된 예술 표현 방법이었던 '리얼리즘' 표현으로 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을 채찍질 하면서 사회의 추악상과 인민혁명을 지원하는 작품세계를 추구하였다.

주사충의 사회적 현실을 다룬 작품은 사회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강렬한 주제였다. 여기서 다룬 중요한 사회주제의 작품은 그의 체험과 느낌을 통하여 내적으로 심화시킨 후에 표현한 것이지만 다소 유형화된 작품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광공도>나 '이쪽'의 표현에서 평범한 것으로 주제가 바뀐다. 이는 혁명 인물이나 사회주의 체제의 찬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사회주의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이 주사충 작품의 특성이다. 그러한 가운데 그의 작품에서는 주변 생활의 소박함과 꾸밈새 없는 정서를 나타낸다.

주사충 작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역사성'이다. 주사충이 제작한 작품은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작품들이 많다. 주은래 총리가 등장하는 인물화나 혁명 인물을 그린 작품들에서 역사적 현실을 기록적으로 그렸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혁명적 사실을 표현한 바탕에는 그 시대의 역사성이 나타나 있다. 초기

15) 노침, 「사실, 표현으로부터 서정에 이르기까지」, 『주사충』, 남우 : 광서미술출판사, 1999, p. 15. 재인용

그림들이 혁명시대의 직접적인 역사성을 나타내는 작품이었다면 <광공도>에서는 역사성이 은유적으로 나타난다. <광공도>에서는 제국주의에 의해 박해 받았던 중국 민족들의 분노가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중국 변방 민족인 <이족>들의 생활상을 그려놓은 '이족' 연작 에서도 변방인들의 아픈 역사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사총의 작품에서는 중국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전통성' 과 '역사성' 그리고 '리얼리즘'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은 주사총 개인의 예술적 특성이기도 하고 그 시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 사회적 특성이기도 하다.

Ⅵ. 결 론

이상과 같이 주사총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사총의 작품세계는 대개 1980년에서 1993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특히, 중앙미술학원을 졸업하고 성숙된 작품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문화대혁명' 시기를 맞으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문화대혁명' 이후 10년 동안 쌓아놓았던 작품에 대한 계획을 쏟아놓는 기간조차도 병을 얻게 되면서 짧은 기간이 되어버렸다.

주사총의 작품세계는 대체로 '리얼리즘의 표현 시기' '광공도(礦工圖)의 표현 시기' '이족(彝族)의 표현 시기' '연화(蓮花)의 표현 시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리얼리즘의 표현 시기에서는 중국 정치·사회의 현실 속에서 '공농병을 위하여 복무' 하는 방침에 따라 혁명적 이상주의와 미래에 대한 아름다움과 동경을 표현하였다. '광공도의 표현 시기' 는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차츰 작가들이 표현하는 주제도 자유로워지는데 일제국시대의 만행과 중국의 아픈 역사를 '광공'(礦工)들의 표현을 통하여 나타낸 작품 시기이다. '이족(彝族)의 표현 시기' 는 광공도(礦工圖)에 이어지는 중국 변방족의 삶을 기록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그의 시각을 보편적인 생활주변으로 돌린 작품세계이다. '연화(蓮花)의 표현 시기' 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서서 제작하는 작품제작이 어려워지자 병실에 앉아서 다양한 연꽃과 연못을 그린 시기이다. 그 가운데 <광공도>의 표현 시기는 병에 의하여 계획한 것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짧은 기간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표현한 시기였다.

이와 같은 주사총 작품세계의 특성은 중국미술의 '전통성' 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현실을 표현해내었는데 '리얼리즘' 과 '역사성' 이 바탕되어 있다. 이 특성들은 상호 관계하면서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 주사충의 대부분 작품이 중국의 전통 모필로써 제작된 작품이며 그 속에는 사회 또는 생활과 연관된 현실적인 주제가 나타나 있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전통성' 과 '역사성' 그리고 '리얼리즘' 이 작품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당 시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특성이기도 하다.

병고와 싸우면서 이루어낸 주사충의 작품세계는 현대 중국화를 형성하는 데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정치·사회가 급격하게 변환되는 시기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형성한 주사충은 중국 현대 미술사를 형성하는데 중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내서적>

최병식, 『현대동양회화사』, 서울 : 예서원, 1994.

한정희, 『한국과 중국의 회화』, 서울 : 학고재, 1999.

<중국서적>

『주사충』, 남우 : 광서미술출판사, 1999.

『주사충의 기념문집』, 북경 : 영보재출판사, 1996.

낭소군, 『논 현대중국미술』, 강소 : 강소미술출판사, 1996.

주림생 편, 『근현대미술』, 석가장 : 하북교육출판사, 2004.

화천설, 『주사충』, 석가장 : 하북교육출판사, 2002.

<논문>

낭소군, 「중국의 서양미술사 연구」, 『미술사논단 창간호』, 서울 : 한국미술연구소, 1995.

남소군, 「서방사조와 중국의 근대화화」, 『미술사논단 제2호』, 서울 : 한국미술연구소, 1995.

Keywords : 광공도(Mine Worker Painting), 이족(Yi Tribe), 연화(Lotus), 전통성(Traditionalism), 리얼리즘(Realism), 역사성(Historical aspects)